

옥중서 외치는 '정치 혁신' 위한 대국민 호소문

조국의 함성
조국 | 오마이북 | 2만원



한 정치인이 옥중 집필로 펴낸 책이 소리없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에서 쓴 책 '조국의 함성'은 그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맞선 결사적 투쟁 등 뜨거웠던 2024년을 다룬다.

이 작품은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그가 글로써 국민들에게 보내는 호소이자 개인적인 외침이다. 시기별 주요 연설과 기자회견, 회의 발언 등이 본문에 포함됐고 당시 상황과 맥락에 대한 해설 및 현시점에서 소회를 집필했다.

책은 총 4부로 나눠 구성됐다.

1부 '길 없는 길에 두려움 없이 서다'에서는 조 전 대표의 장당 선언 시점부터 광주 총장로와 부산 서면 대중 연설까지 그

의 다짐과 약속의 글을 모았다.

2부 '탄핵으로 가는 쇄빙선'에서 조국 혁신당이 제시한 '경쟁과 협력의 정치', '사회권 선진국'의 핵심을 살피고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해 왜 탄핵이 필요한지 설명한다.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를 내걸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다.

3부 '위헌·위법 비상계엄부터 탄핵까지'는 현직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긴급기자회견,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직후 입장 발표, 국회 앞 시민집회와 비상시국대회 연설 등 당시 급박했던 상황에서 이뤄진 조 전 대표의 호소와 함성을 담았다.

4부 '가장 뜨거운 파란 불꽃이 되어'에서는 대법원 선고 이후 옥중에서 당원과 국민에게 보낸 편지와 언론 기고를 모았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과 형사처벌 이후에도 정권의 공동운영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

설한다. 무엇보다 정권교체에 성공해야만 비로소 헌정과 법치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사회권을 보장하고 민생을 강화하는 새로운 민주정부가 필요하다. 일당 독점이 재생산되는 지역 정치 혁신과도 맞물리는 시대적 과제"라며 "법치를 단지 법률 전문가의 것이 아니라, 주권자의 뜻과 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고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전방위적 표적 수사의 대상이 돼 퇴임 후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책을 통해 '길 없는 길'을 걸으며 두려움 없이 싸



지난해 12월16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되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스

웠던 투사, 웅변가, 정치인으로서의 조국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독자들이 조국이란 인물을 머리보다 가슴

을, 논리보다 직관을, 이성보다 감성을 통해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세이빙 어스
캐서린 헤이호 | 말하는나무 | 2만2000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독려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기후위기를 노골적으로 외면하는 가운데 지구를 구하기 위해 사회적 행동을 촉구하는 책이 출간됐다.

캐나다 출신 기후과학자이자 석좌교수인 캐서린 헤이호는 "기후는 변화하고 있



고,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며 "그 영향이 매우 심각하지만, 지금 바로 대응하면 희망이 있다"고 제안한다. AI가 짚은 '2024년 주목할 인물'인 그는 이 책을 통해 오늘날 실행 가능한 기후위기 해결책을 제시한다. 서술된 내용에 설득된 독자들은 어느 순간 기후행동가를 자처하는 본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역사학자와 뉴스 앵커가 '12·3 비상계엄'의 여파를 심도 있게 분석한다. 그간 흘러온 역사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고 단정 짓기 이르다고 경고한다. 법이 아닌 기득권의 논리로 세상을 이해하는 이들에게 민주주의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추장스러운 제도일 뿐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으로 이어진

저자들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피, 땀, 눈물로 이루어낸 짧은 민주주의 역사는 여전히 취약하다. 결국 이러한 취약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를 명확히 인식해 낼 수 있는 국민의 민주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대 세계사로 되짚는 독재자들의 몰락

쫓겨난 권력자
박천기 | 디페라스 | 1만8800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8차 변론을 마친 가운데 현대 세계사 속 독선과 타락으로 무너진 권력자의 사례를 분석한 책이 출간돼 화제다.

이 책은 독재자들이 몰락한 평행이론을 대중의 요구에 응하는 영웅적 등장으로 시작해 개인적 욕심이 야기한 불명예 퇴장으로 끝을 맺는다고 설명한다. 선을 넘은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지도자, 그런 과오를 정당화하면서까지 여전히 그를 추종하는 이들이 결국 무도한 권력

자가 탄생하게 되는 배경이다. 하지만 저자는 과거를 돌아볼 때 이들의 최후가 결코 순탄치만은 않다고 호언한다. 고대 사회에서는 강의 범람이 민감한 사안이었다. 생활을 위해 모두가 물가에 몰려 살았고, 물가에서의 정착은 농경으로 이어졌다. 강의 범람을 예측하기 위한 달력이 탄생했고 천문학이 발달했으며, 내년을 위해 오늘의 기록을 남겼다. 이렇게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정치의 기원은 역사와 엮여 있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불

편을 최소화해 주는 것이다. 정치인 자신의 보신과 편익을 도모하며 국민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정치라고 할 수 없다.

시대와 세대를 막론하고 다시 겪는 비극들을 비추어볼 때 역사란 '뒤돌아선 예언'이다. 역사 속의 사례를 돌아보는 일은, 우리의 내일을 내다보는 일인 셈이다.

본문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처한 상황과 맞닿은 기시감이 시종일관 작동되는 건 우연이 아니다.

저자는 이 책을 펴내며 "역사는 항상 진보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만은 아니다"며 "때로 자기모순에 걸려 역행한다. 혼란의 시대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빛 또한 역사로부터 배워야 하는 이유"라고 언명했다.

박찬 기자

포스트 AI 시대 잉여인간
문호성 | 오아북스 | 1만8000원



최근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보안 문제가 전 세계적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 생존의 법칙을 분석한 책이 출간돼 화제다.

책에서는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인식하듯 하루 종일 사용하는 현대인을 신인류 '포노 사피엔스'로 지칭하며 AI로 무장한 로봇의 등장이 어떤 위협으로 다가올지 파헤친다.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에서 '잉여인간'으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자질들을 살펴하며 종속적인 삶이 아닌 주인이 되는 삶을 향한 방향을 제시한다. 돌이킬 수 없는 AI 시대, '대체 불가능한 인간'이 되기 위해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찬 기자



트럼프의 영토확장 야욕 속 한국 외교 시험대

제국 없는 제국주의 시대
김성해 | 개마고원 | 2만원



4년 만에 백악관 재임성에 성공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는 '제국주의 회귀'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거침없다.

그는 취임 후 △캐나다에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 제안 △그린란드 매입 강경 주장 △파나마 운하에 대한 권한 제기 △미국의 가지지국 점령·통치 등의 의사를 지속 표명하며 국제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지난 11일(현지시간)에는 미국의 뉴스통신사인 AP통신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멕시코관'을 '미국관'으로 변경해 쓰라는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백악관 집무실 출입을 금지했다.

김성해 작가의 신간 '제국 없는 제국주의 시대'는 트럼프 정부 하에

이처럼 급변하는 국제질서의 소용돌이에서 한국의 선택지를 고안한다. 특히 트럼프가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를 '자유주의적국제질서(LIO)'의 정당성을 파괴하는 야욕으로 진단하고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대영제국이 세계대전을 거치며 불가피하게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미국에 넘겨주는 타협책으로 '영원한 제국'의 꿈을 어떻게 연장했는지, 또 그것을 통해 미국이 초제국으로 진화한 과정을 다룬다. 현재 지구상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크고 작은 전쟁들은 앵글로색슨 제국(영국·미국)이 자의적으로 끊임없이 주적을 개발한 것 때문이라고 그는 분

석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유럽과 미국 내 군·관료·기자 등 영역을 망라한 내부고발자들의 사례와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한다.

신냉전이나 탈제국이라는 갈림길에서 우리의 선택지는 무엇일지도 책에서 다루는 화두다. 현재 국제사회의 본질을 미중 갈등을 뼈대로 하는 '신냉전'의 관점에서 보느냐, 초제국 진영과 이를 깨려는 진영 간의 대립인 '탈제국'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미국은 '필수 불가결한 강대국'으로도 '일방주의적 제국'으로도 보인다는 해석이다.

두 진영의 줄다리기를 양쪽 모두로부터 견인 받는 한국의 유연한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박찬 기자

